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4. 23.(목) 총 8매(본문5, 붙임3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(도시경제과)	담 당 자	• 과장 이익진, 사무관 김세목, 주무관 문병운 • ☎ (044) 201-4842, 3738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24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4(금) 10:00 이후 보도 가능	

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처방으로 획기적 개선... 전국 확대한다.

- 지자체 · 민간 · 주민이 함께 참여해 스마트챌린지 모범사례 창출
- 김장관, 공유주차 · 모빌리티 현장에서 “전국확산·해외수출” 강조

□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(삼정동) 마을의 “공유주차·모빌리티 사업”이 앞으로 부천시 내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, 대중교통을 함께 연계·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*로 발전된다.

* Maas(Mobility As A Service): 공유주차와 모든 이동수단(공유차량 및 대중교통)을 통합 검색·결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

○ 스마트시티 챌린지*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, 예비사업에서 1년간 사업계획 수립과 대표사업 시범운영(예산 15억)을 추진하고, 본사업에서 3년간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본격 추진(예산 200~300억)하는 사업이다.

* '19년 6곳 대상 첫 예비사업 실시, 올 2월 3곳(부천·인천·대전) 본 사업지 선정

□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상살미마을은 '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'18년에 해제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은 곳이다.

-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,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(공유카, 공유킥보드)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으며,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(시티패스)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·관리하였다.

< 서비스 아이디어 >



< 공유주차 현황 >



*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

* 연두색: 빈 주차공간,
* 회색 : 既 점유 주차공간

- 이를 통해, 예비사업 기간 동안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, 주차장 수급률 72%p 증가(37→109%), 불법주차 41% 감소(266→156대/일), 마을기업(상살미 사람들) 운영으로 21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뒀다.

<예비사업 성과>



- 특히,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마을주민이 적극 참여해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(상살미사람들)을 설립하는 등 “주민참여형 사업”으로 추진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.
- 마을기업은 공유서비스를 기업과 함께 운영·관리하면서 불법주차 점점 지원 등을 수행하고, 부천시는 조례 개정으로 거주자우선 주차면 배정 수입(1면당 3만원/월)의 70%를 마을기업에 지원하여 마을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하였다.

<사업추진 전>



<사업추진 후>



*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골목불법주차, 도시미관 훼손 등 문제가 있었으나, 공유주차 및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문제 해결

- 부천시의 “공유주차·모빌리티 플랫폼”의 혁신성과 우수성이 입증되면서, 여러 지자체와 기업,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, 국토부의 「K-City Network」 국제공모로 이어지는 성과도 있었다.
- “공유주차·모빌리티 플랫폼”은 지난해 싱가포르, 몽골, 세르비아,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, 몽골의 경우 수도인 울란바토르가 부천시의 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「K-City Network」 국제공모에 “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” 지원대상으로 선정(20.4월)되기도 하였다.

* 싱가포르 ITS 세계대회(19.12), 부천-몽골 울란바토르 MOU 1주년 세미나(19.12), 한국-세르비아 수교 30주년 기념 스마트시티 세미나(19.12), 인도네시아 과학원 초청(20.1)

- 또한, 경기도 등 10여개 지자체, 한컴모빌리티 등 10여개 기업에서 솔루션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.

* (지자체) 경기도, 의왕시, 서초구, 남양주시, 안양시 등

* (민간기업) 한컴모빌리티, 오션네트웍스, 동부아이씨티 등

<몽골 공유주차 정책 협력방안논의>



<인도네시아 과학원 워크숍>



□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“공유주차·모빌리티 플랫폼” 서비스는 부천시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간 연계를 통해 최적경로안내·통합 예약·결제·환승이 이루어지는 “Maas(Mobility As A Service)”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지역의 안전·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LED 빔을 활용해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안전 가상울타리, 영상 AI기술을 활용해 쓰레기 불법투기 빅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 효율적인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솔루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

○ 이 사업을 통해 '22년까지 부천시 내에서 14개의 마을기업을 설립, 300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 및 연간 49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편, 김현미 장관은 24일 부천시청을 찾아 17개 참여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.
 - 참여기업들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에 감사함을 표하였고, 해외 진출 지원과 Maas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적극 육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.
 - 이 자리에는 부천시에 지역구를 둔 원혜영, 서영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참석하여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.
 - 김 장관은 “지자체·기업·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의 높은 혁신성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, 많은 국민들이 이를 경험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산과 해외수출을 위한 재정지원, 기술컨설팅, 규제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
-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상살미 마을을 찾아 공유주차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, 마을 내 공유주차장과 및 전기차·킥보드 등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현황을 참관하였다.
 -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“부천시가 마을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공유주차 및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점은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가 될 것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.
 - 또한, 김 장관은 “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추진할 본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천시와 주민, 관련기업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김세목사무관(☎ 044-201-4842) 또는 문병운 주무관(☎ 044-201-3738)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현장방문 개요**

- (時/所) '20.4.24(금) 10:00~11:40 / 부천시청 및 상살미 마을 일원
 - 1부(간담회) : 부천시청 5층 창의실(부천시 중동 1156)
 - 2부(현장방문) : 상살미 마을(부천시 삼정동 283)

< 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개요 >

- ▶ (사업내용 및 효과) 낙후된 원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,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 모빌리티(공유카, 공유킥보드) 서비스를 함께 제공⇒ **주차장 280면 조성 및 29억 절약 효과**
- ▶ (특징)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**시민참여형 마을기업(상살미사람들)**과의 **민관협동모델**을 통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으로 **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도시**를 구축

- (목 적)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챌린지사업 추진현황 점검
- (참 석) 장관님, 부천시장, 국회의원(원혜영, 설훈, 서영석), 부천도시공사 사장, 참여기관*, 마을기업(상살미) 대표 등 20여명

* 데이터얼라이언스, 카카오, 모두컴퍼니, NH, 서울대 등 17개 기관

□ **세부일정**

- 참여기업 간담회, 현장시찰 순으로 진행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10:00 ~ 10:50	50'	■ 참여기업 간담회	-(보고)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
10:50 ~ 11:05	15'	< 현장 이동 >	
11:05 ~ 11:35	30'	■ 현장시찰 : 상살미 마을 일대	-안내: 부천시 스마트시티담당관
11:35 ~ 11:40	5	■ 단체 사진촬영	- 상살미 커뮤니티 앞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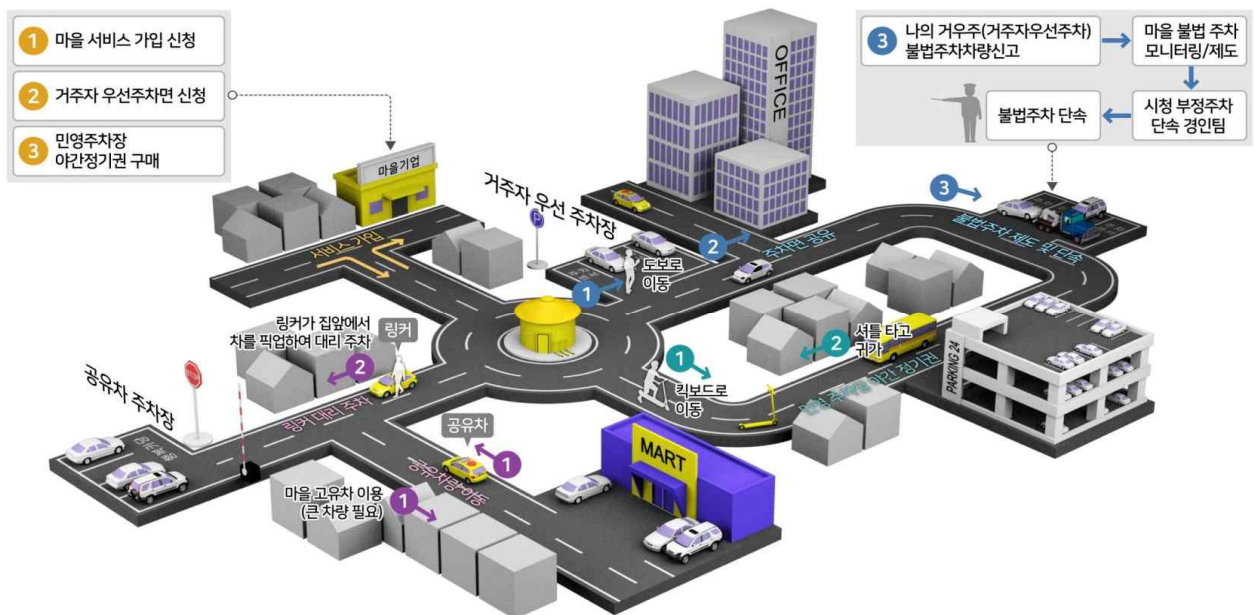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(위치·면적) 부천시 삼정동 상살미 마을 일원 (면적 : 0.144km²)
- (주요내용) 사회적 경제 모델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한 주차문제 해결
- (참여기업) 데이터얼라이언스, 카카오모빌리티, 데일리블록체인, 모두컴퍼니, 래디우스랩, 한전KDN, 울룰로, 동림TND, UDI, 마지막삼십분, 서울대학교 교통연구소, 한국토지주택공사

□ 세부내용

- 예비사업에서 낙후된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고자 삼정동을 대상으로 AI·데이터 기반의 주차장, 전기차, 킥보드,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실증
- 향후 본사업에서는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실증결과를 고도화하고 부천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교통과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,
 - 부천내 교통·안전·환경문제 등 개선을 위한 AI·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도 대폭 확대 검토

□ 사업 구상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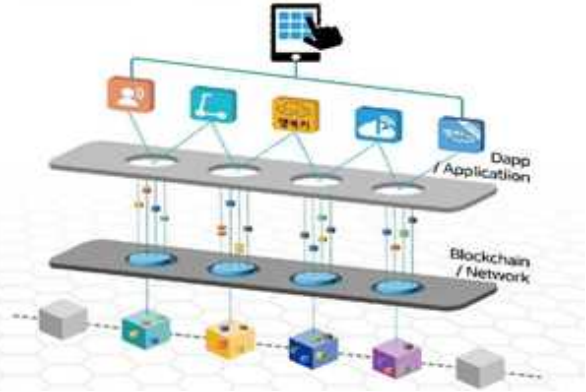
< 서비스 개념 >

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 이동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**서비스 공유 체제 구축**

▶ 공유서비스의 통합(MaaS)



▶ 공유서비스간 신뢰(블록체인)



< 공유주차·모빌리티 어플리케이션 >



< 전기차 >



< 킵보드 >

